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 방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전공

허 혜 숙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 방식

지도 김 소야자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 월 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전공

허 혜 숙

# 허혜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년 12월 일

## 감사의 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 (시편 18:1~2)

뒤늦게 시작한 학업에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시작한지 2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늘 나를 따라 다녔지만 그때마다 용기와 격려를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첫 수업을 마치고 가슴에 하나 가득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돌아가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바쁜 생활이었지만, 배움의 기쁨으로 즐거웠습니다. 더 넓은 시각과 학문의 소중함을 보여준 교육대학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이란 과정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세심한 지도와 조언으로 이끌어 주신 김소야자 교수님과 전체적으로 논문 연결과 어휘 하나까지 살펴주신 이규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시며 열성적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장순복 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동고동락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지낸 대학원 동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학업을 위해 중보 기도로 힘을 실어 주었던 인권학원 신우회의 모든 선생님들과 통계를 자문하여 준 성운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옆에서 지켜보며 따뜻한 위로를 준 남편 전양우님과 같이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엄마를 격려하여 준 바울과 은지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05년 12월 허혜숙 드림

# 차 례

표 차 례 .....	iii
그림차례 .....	iv
국문요약 .....	v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용어의 정의 .....	4
4. 연구의 제한점 .....	5

## II. 문헌고찰

1. 여자 청소년과 흡연 .....	6
2.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방식 .....	10

##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	14
2. 연구 대상 .....	14
3. 연구 도구 .....	14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	17
<b>IV. 연구결과</b>	
1.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 .....	18
2. 스트레스 수준 .....	22
3. 스트레스 대처 방식 .....	28
4.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의 차이 검증 .....	33
<b>V. 논 의</b> .....	39
<b>VI. 결론과 제언</b>	
1. 결론 .....	44
2. 제언 .....	46
참고문헌 .....	47
부 록 .....	55
영문초록 .....	61

## 표 차 례

<표 1> 학교유형별 흡연율 .....	9
<표 2> 스트레스 수준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15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
<표 4> 흡연 학생들의 흡연 관련 특성 .....	21
<표 5> 실업계 여고생이 문항별 스트레스 수준 .....	23
<표 6> 실업계 여고생의 영역별 스트레스 수준 .....	24
<표 7> 흡연 유무에 따른 각 문항별 스트레스 수준 .....	26
<표 8>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비교 .....	27
<표 9> 실업계 여고생의 문항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 .....	28
<표 10> 흡연 유무에 따른 문항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 .....	30
<표 11>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비교 .....	32
<표 12> 흡연 유무에 따른 생활 관련 특성의 차이 검증 .....	33
<표 13> 흡연 유무에 따른 음주와 부모의 흡연 차이 검증 .....	35
<표 14> 학년별 흡연·음주 유무와 담배 피우는 친구와 분포 .....	36
<표 15> 흡연 학생의 학년별 담배시작 동기와 흡연량, 금연의지 .....	37

## 그림 차례

<그림 1>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흡연률 .....	8
-------------------------------	---



## 국문 요약

###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 방식

본 연구는 흡연이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실업계 여고생들의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학생과 비흡연 학생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두 집단간에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 16문항과 스트레스 수준 측정 44문항, 대처 방식 4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개 실업계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chi^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여고생들의 흡연율은 32.5%로 나타났으며, 하루 흡연량은 6~10개피가 가장 많았다. 담배 시작 동기로는 호기심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26.9%로 나타났다. 최초 흡연 시기로는 중학교 2학년 때가 27.9%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초등학교 때 시작한 학생도 무려 10.2%를 차지하였다. 또한 흡연 학생의 79.7%가 금연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흡연 유무에 따른 생활관련 특성에서 학교생활의 만족도, 학교성적, 부모와의 관계 등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보다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하위권인 경우 더 많았다. 흡연 학생이 한달 용돈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

며, 건강에 대한 지각정도도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의 흡연여부와 음주사용은 학생의 흡연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간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 5점 만점에 흡연 학생이 평균 2.97로 비흡연 학생 평균 2.55에 비해 더 높게 나왔으며, 하위영역별 학교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자아영역에서도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 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비교한 결과 4점 만점에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에서는 흡연 학생이 평균 2.31, 비흡연 학생이 평균 2.11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하여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몇 가지를 제언하면 흡연 시작 시기가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흡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실업계 여고생이 갖는 스트레스 중에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느끼고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비교도 가정생활 스트레스에서 흡연 학생 2.95, 비흡연 학생 2.44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금연 관리 프로그램이 가정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실업계와 인문계 여고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정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범세계적으로 흡연의 위험이 알려짐에 따라 서구 선진 국가들의 성인 흡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과 여성 인구의 흡연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박인석, 2003). 흡연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흡연의 해로움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더욱이 이러한 흡연 행동은 보건 의료 뿐 아니라 약물 남용 등 청소년의 비행과 연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막대한 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김현실외, 2001).

청소년의 흡연율의 차이를 학교 유형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학생은 1997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흡연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계 여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실업계 남학생의 흡연율은 23.7%로 인문계의 흡연율 10.7% 보다 약 2배 높았으며, 특히 여고생의 경우에는 실업계의 흡연율이 17.3%로 인문계의 흡연율 3.2%보다 5배 높아 실업계 여고생에 있어서 흡연에 대한 심각성이 더함을 보여 주고 있다(한국금연운동협회, 2004).

여고생이 성인기까지 흡연을 할 경우에 내성과 습관성을 갖게 되어 임신과 출산, 수유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되며, 가임기 여성의 흡연은 장차 태어날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이윤로, 1997).

흡연과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량이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주었고(배종면, 1994), 청소년의 흡연 동기의 2위가 스트레스 해소로 나타났으며(이해숙, 1989), 성인의 흡연 이유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33.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박셋별, 2001). 청소년 흡연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원, 1997; 주혜경, 1994).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 실태 연구에서 흡연하는 학생의 41.0%가 스트레스 해소로 흡연을 계속한다고 하였다(김복순, 2004).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흡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의 흡연 실태에 관한 연구와 그에 따른 관련 요인 분석, 흡연에 대한 태도 조사, 건강 관련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흡연 연령이 낮아지면서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녀 학생을 포함한 연구에서는 단지 여학생을 남학생과 달리 사회적 배경 변수로서만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여학생이 처한 환경과 흡연 행태에 대한 분석 결과로 보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서 중심적 대처와 문제 중심적 대처를 모두를 사용하며(정은선, 1996), 남자 청소년은 운동, 문제와 감정의 은폐, 문제무시 등의 대처 방식을 사용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사회적 지원 추구, 종교적 대처, 소망적 사고 등의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신현숙 외1인, 2001).

Moos 와 Billings(1984)는 우울과 대처 방식의 연구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는 낮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되고 반대로 정서 중심적 대처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Matud(2004)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정서 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듯이 남·녀의 대처 방식의 차이를 보거나 우울 집단간에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방식의 차이를 본 연구는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일반계 여고생 보다 상대적으로 취업과 학업의 부담을 가진 실업계 여고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업계 여학생의 흡연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실업계 여자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실업계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흡연과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흡연 여고생과 비흡연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흡연 여고생과 비흡연 여고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차이를 분석한다.
- 셋째. 흡연 여고생과 비흡연 여고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파악하고 차이를 분석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스트레스 수준

\*이론적 정의 : 생활 사건에서 생겨나는 압박감으로 적정 수준까지는 생활을 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서 생활할 때에는 효율성이 상실되며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고 생활과 복지에까지 유해한 결과를 나타내는 정도이다(황영숙, 1996).

\*조작적 정의 : 이정순(1988)이 개발한 질문지를 변영주(1995)가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긴장과 피로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청소년 스트레스 요인과 경험’에 대한 44문항으로 측정된 점수이다.

####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론적 정의 :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은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개인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노력을 대처(Coping) 또는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라 한다(Folkman & Lazarus, 1984).

\*조작적 정의 :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 방식 척도 (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기초하여 김정희(1987)가 수정, 보완한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대처, 정서 완화적 대처 방식으로 구성된 질문지 62문항 중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에 해당하는 44문항을 뽑아서 4점 척도로서 측정된 점수이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도시의 일개 실업계 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II. 문헌 고찰

### 1. 여자 청소년과 흡연

김대현(2003)에 의하면 여성의 흡연을 증가는 여성이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특히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젊고, 교육을 받은 여성과 직업여성들에게서 급속히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의 34%가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고, 56%가 20-25세 사이에 흡연을 시작하는 등 전체 흡연자의 90%가 2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여 중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1999년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흡연율은 41.6%로 이는 일본의 26.2%(1991), 미국 흑인의 28.2%(1997), 영국의 20.5%(199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특히 한국 청소년 흡연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맹광호, 2003).

강대운(199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자들의 최초 흡연 시기가 중학교 3학년 때가 가장 많았고, 여자 고등학교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은희(1998)연구에서도 최초 흡연 시기가 중학교 3학년 때가 가장 많았다. 이성희(1993)연구에서는 59.5%, 남옥희(1994)연구에서는 57.5%가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로 중학교 때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흡연이 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세포, 조직, 장기 등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 정도가 성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지선하, 2002).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면 유전 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겨 비록 담배를 끊어도 암 발생 위험은 그대로 지속이 된다. 이런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점차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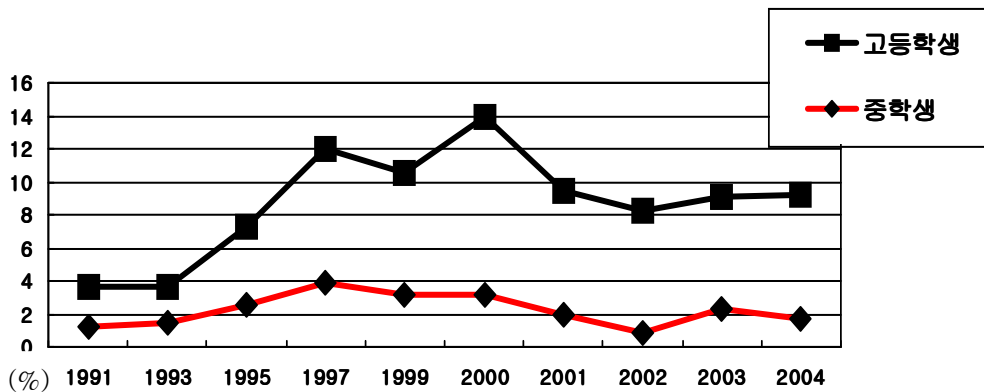
아져 가는 흡연 연령과 청소년들의 흡연율의 증가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기 중에서 특히 여성의 흡연은 여러 가지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 흡연을 시작하면 니코틴에 의한 중독이 심각하고 심리적인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에 대한 흡연의 폐해는 본인 뿐 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황보빈, 2003). 흡연하는 여성의 임신 성공률은 비흡연 여성보다 30% 정도 낮으며, 흡연 산모는 비흡연 산모에 비해 유산될 확률이 3배가량 높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흡연은 태반박리, 전치태반, 임신 중 자궁 출혈, 조기양수과열 등의 위험을 야기하며, 각종 질병의 저항력이 약화되어 혈관을 넓게 만들고 심장병, 뇌졸중에 걸릴 확률 또한 남성보다 크며, 혈관성 질환으로 숨질 위험은 1.5배 가까이 높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많은 경우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이어서 20대 여성 흡연율이 80년 1.4%에서 2002년 8.1%로 6배가량 늘어 사회적 폐해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지선하, 2003).

또한 건강에 대한 폐해가 여성에게 더 심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담배 끊기가 더 어렵다는 보고가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생리와 이에 따른 심리적 요인에 있으며, 생리주기 중 배란 후반기에 금연을 위한 노력은 거의 성공한다(Reginald, 1996).

지선하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1991년 여자 중학생의 1.2%, 여자 고등학생의 2.4%가 흡연을 하였던 반면 2000년에는 여자 중학생 3.2%, 여자 고등학생 10.7%가 흡연자로 지난 10년 동안 여성 청소년의 흡연율은 약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학생의 흡연 추세와 대조적이다.

남학생은 1997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흡연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학생의 흡연은 [그림 1] 과 같이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가운데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자료: 한국금연운동협회, 2004]

[그림 1]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 (1991-2004)

2004년 금연운동협회의 청소년 흡연 통계에 의하면<표 1>과 같다. 중학교 남학생의 6.2%, 여학생의 3.1%, 고등학교 남학생의 32.6%, 여학생의 7.5%가 흡연하고 있으며, 여고생의 흡연율 중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10.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인문계 여학생의 흡연율 2000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실업계 여학생의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문계 여학생의 흡연율 3.2%에 비해 실업계 여학생의 흡연율은 17.3%로 무려 5배 높았다. 이것은 흡연이 인문계 여고생에 비하여 실업계 여고생들에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학교 유형별 흡연율(1995-2004)

(단위 : %)

년도	남자		여자	
	인문계	실업계	인문계	실업계
1995	24.8	22.9	3.5	4.8
1997	37.6	51.8	8.8	14.8
1999	26.9	38.9	2.5	20.8
2000	21.1	38.0	7.0	15.0
2001	17.0	31.9	6.5	13.6
2002	13.9	37.5	5.5	13.2
2003	13.0	32.6	4.2	12.5
2004	10.7	23.7	3.2	17.3

[자료: 한국금연운동협회, 2004]

또한 인문계 고등학생(61.8%)이 실업계 고등학생(50.5%)보다 건강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질병상태에서도 실업계 고등학생(11.3%)이 인문계 고등학생(6.8%)보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희, 2003).

## 2.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방식

청소년 시기는 심한 갈등과 정서의 분열 및 통합이 교차되는 과도기이다. 사춘기에 따르는 변화와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오는 긴장감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욱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심한 좌절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만들 수 있다(강대운, 1997).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적, 생리적인 부적응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김정희, 1987).

스트레스와 흡연 관련 연구를 보면 진희숙(1994)은 중학생 1,383명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43.8%가 스트레스를 흡연 동기 중 1위로 꼽고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건전하지 못한 흡연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인지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감정적 지향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그 중 고등학생들이 단기적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습관성 흡연, 음주, 약물 남용 등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혜란, 2001), 흡연 정도에 대하여 또래 영향 변인과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에서 각각 유의한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이은영, 1997). 그리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담배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흡연 시작이 빠를수록 현재 흡연량이 많은 것으로 보여 졌다(배종면, 1994). 또 성인 흡연에서도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중등도 스트레스군에서 흡연할 위험이 1.4배 높았으며 고스트레스군의 경우 2.2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이경희, 2003).

스트레스 요인에 청소년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음주, 흡연, 약물 남용등과 직결되므로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는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이은현, 2003).

Kaplan과 Sadock(1985)은 청소년 흡연의 심리적 동기로써 사회적 강화를 들었는데 그들이 대인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색함, 부적절함, 불안 등을 담배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이 사회적 강화인자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흡연하면서 빨아들이고 내뿜는 동작이 불안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청소년 흡연 동기 중 31%가 스트레스 해소이며(서일, 1998),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4.6%가 흡연을 하고(박셋별, 2001), 남녀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89.0% 여학생의 81.3%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록 흡연량이 증가한다(임국환, 2004).

이지원(199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흡연을 많이 하고,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음주 정도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친구의 흡연, 자기 효능감, 형제의 흡연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Selye(1982)의 현대적인 이론 정립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도 해를 거듭할수록 변인과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정옥남(1993)은 성격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대부분의 특성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비해 높으며, 특히 주도성, 책임감, 호감성, 그리고 동조성 등의 성격 특성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높았고, 이상영(1993)은 스트레스 정도와 장애, 그리고 대응 활동에 관해 밝히고 있는데 스트레스 근원은 높으나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하지 않아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대처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임을 밝혔고 일반적으로 고교 3학년 수준에서는 문제 지향적인 대응을 하나, 1,2학년에서는 정서 지향적 대응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해옥(1994)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은 학교생활이 가정생활보다 중간 수준 이상으로 높았고 전체적으로 적극적 대처를 하며, 문제 지향적으로 대처한다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성적이 상위인 학생이 더 높았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전문적일수록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박은영(1994)은 종교를 불문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순위는 성적관련이었고, 이경희(1995)도 고등학생들은 학업성적 문제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업성적문제, 이성친구와의 문제, 심리성격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그 외에는 적극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차태경(1998)은 고교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 유형을 학교생활에 관한 문제, 학업문제, 친구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있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대응행동에 있어 남학생은 객체관련행동(술, 담배, 오락실가기 등)을 많이 하며, 여학생은 인지활동 지향행동(음악듣기, 노래 부르기, 독서하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정은주(2000)는 스트레스 수준과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밝혔는데 계열, 성별에 상관없이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스트레스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철순(2000)은 계열, 성별, 학년에 따라 스트레스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한 결과 성별,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1987)는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 방식 척도 (The Ways of Coping Checklist)에 기초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소망적 사고, 정서적 완화적 대처 등으로 대처 방식을 구분하고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는 적극적 대처로,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사고(거리두기)는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정서 중심적 대처 행동

은 스트레스 극복에는 효과적이나 본질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게 되므로, 상승적 사용은 차후의 극복에 장애가 되며, 문제 중심적 대처 행동이 불가능 할 때만 긍정적 결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서 중심적 및 문제 중심적 대처들의 모두를 사용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만 한다.(정은선, 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를 본 신현숙 외1인(2001)의 연구에서 남·녀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가 유의하게 있으며 남자 청소년은 운동, 문제와 감정의 은폐, 문제무시 등의 대처 방식을 사용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사회적 지원 추구, 종교적 대처, 소망적 사고 등의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oos 와 Billings(1984)는 우울과 대처 방식의 연구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는 낮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되고 반대로 정서 중심적 대처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되고, Matud(2004)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정서 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문제 중심의 대처가 정서 중심의 대처보다 더 좋은 적응 결과를 가져온다.(김정희, 1991).

이상과 같이 대처를 나누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처를 스트레스를 다루어 가려는 노력(Lazarus, 1981 ; Moos & Billings, 1982)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처 행동은 대처하는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학교 및 자아 관련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사회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방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흡연 여자 청소년과 비흡연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고 이들의 대처 방식을 분석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의 일개 여자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흡연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방식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1개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전체 684명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78명을 제외한 6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 16문항과 스트레스 수준 측정 44문항, 대처 방식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홍상욱(2003)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개인 환경적 특성(학년, 종교,



흡연여부, 흡연량, 흡연동기, 음주유무, 금연의지유무,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담배를 피우는 친구 수, 흡연 시작 시기, 한 달 용돈, 친구와의 관계,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건강상태), 가정 환경적 특성(경제 상태, 부모의 흡연,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관련 특성(학업 성적, 학교생활 만족)을 측정하였다.

## 2) 스트레스 측정 도구

이정순(1988)이 개발한 질문지를 변영주(1995)가 수정하여 사용한 ‘청소년 스트레스 요인과 경험’을 사용하였다. 이정순의 질문지에는 학교, 가정, 대인관계, 자아 영역, 환경 영역 등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변영주가 작성한 질문지에는 환경 영역을 제외한 학교, 가정, 대인 관계(친구관계), 자아 영역 등 4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박은주(2002)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관련 요인 중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에서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78$ 에서  $.86$ 였고,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한 이윤경(2005)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82$ 에서  $.95$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84$ 이며 스트레스 도구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스트레스 수준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학교 생활	1 ~ 11번	.87
가정 생활	12 ~ 22번	.79
대인 관계	23 ~ 33번	.76
자아 영역	34번 ~ 44번	.78

질문지는 각 영역별로 11문항 씩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는 각 요인들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 스트레스 점수의 범위는 44점에서 220점이며, 4가지 하위 영역별 스트레스 지각 점수는 각각 11점에서 55점으로, 응답 방식은 5단계 평정 척도로 각 문항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전혀 받지 않는다” 는 1점 “약간 받는다” 는 2점 “대체로 받는다” 는 3점 “많이 받는다” 는 4점 “아주 심하다” 4점 척도로 평정하여 스트레스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스트레스 대처방식 도구

Folkman 과 Lazarus(1980)가 개발한 6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정된 대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기초로 하여 김정희(1987)가 수정, 보완하여 만든 62개 문항 중에 조성은(2004)연구에 근거하여 문제 중심 대처(29문항)와 정서 중심적 대처(15문항)에 해당하는 4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Likert형 4점 척도로 “사용하지 않음” 은 1점, “약간 사용” 은 2점, 많이 사용” 은 3점, 아주 많이 사용” 은 4점으로 되어 있다.

오선향(200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구성과 신뢰도 Cronbach  $\alpha$  계수는 .87에서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80이었다.

##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 1)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9월 15일부터 9월 27일 까지 이며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 대상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도록 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684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06부의 설문지를 자료로 분석하였다.

###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거나 점수로 입력되었으며 입력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PSS 10.0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흡연여부, 가족의 흡연여부, 친구의 흡연여부, 흡연량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흡연 유무에 따른 두 집단간에 스트레스 수준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흡연 유무에 따른 두 집단간에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흡연유무에 따른 술, 담배친구, 어울리는 시간, 용돈, 학업성적, 학교생활가정형편, 부모의 흡연여부, 부모와의 관계, 본인의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

실업계 여고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 흡연 학생의 흡연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와 같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44명(56.77%)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은 100명(16.5%), 3학년은 162명(26.7%)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해 대학 진학에 대한 국가 정책으로 실업계 진학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전체 학생들 중에 1학년의 학생수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담배피우는 친구가 있는지는 606명 중에 499명(82.3%)으로 실업계 여고생의 주변에 흡연하는 친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249명(41.1%)이 3시간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한달 용돈은 5만원이상 쓰는 학생이 163명으로 26.9%를 차지하였고,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359명(59.2%)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9명(29.0%)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259명(42.7%)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278명(45.9%)이 보통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은 556명(91.7%)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상자의 368명(60.7%)의 아버지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45명(7.4%)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606

특 성	구 분	명(%)	
학년	1학년	344(56.8)	
	2학년	100(16.5)	
	3학년	162(26.7)	
	계	606(100)	
담배	담배 안 피움	409(67.5)	
	담배 피움 (하루 동안)	1-2개피미만	22(3.6)
		3-5개피미만	49(8.1)
		6-10개피미만	87(14.4)
		11개피이상	39(6.4)
계	606(100)		
음주	예	317(52.3)	
	아니오	289(47.7)	
	계	606(100)	
담배피우는 친구	전혀 없다	107(17.7)	
	약간 있다	282(46.5)	
	많이 있다	217(35.8)	
	계	606(100)	
친구와 보내는 시간	1시간미만	140(23.1)	
	1-3시간미만	217(35.8)	
	3시간이상	249(41.1)	
	계	606(100)	
한달용돈	3만원미만	270(44.6)	
	3-5만원미만	173(28.5)	
	5만원이상	163(26.9)	
	계	606(100)	
학교성적	상위권	115(19.0)	
	중위권	315(52.0)	
	하위권	176(29.0)	
	계	606(100)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71(11.7)	
	보통	359(59.2)	
	불만족	176(29.1)	
	계	606(100)	

부모와의관계	만족	259(42.7)
	보통	278(45.9)
	불만족	69(11.4)
	계	606(100)
가정 형편	넉넉한 편	50(8.3)
	보통	337(55.6)
	어려운 편	219(36.1)
	계	606(100)
부의 흡연	전혀 안 피움	238(39.3)
	가끔 피움	89(14.7)
	하루 반 갑 정도	166(27.4)
	하루 한 갑 이상	113(18.6)
	계	606(100)
모의 흡연	전혀 안 피움	561(92.6)
	가끔 피움	25(4.1)
	하루 반 갑 정도	16(2.6)
	하루 한 갑 이상	4(0.7)
	계	606(100)
건강지각상태	매우건강	134(22.1)
	비교적 건강한 편	390(64.4)
	건강하지 않음	82(13.5)
	계	606(100)

전체 학생 중 흡연 학생이 197명(32.5%)으로 나타났고, 비흡연 학생이 409명(67.5%)이었으며, 흡연 학생 중에 하루에 11개피이상 피우는 학생이 39명(6.4%)으로 나타났다. 317명(52.3%)이 음주를 하고 있으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지각하는 정도는 390명(64.4%)이 비교적 건강한 편, 134명(22.1%)이 매우 건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82명(13.5%)만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2) 흡연학생의 흡연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 중에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흡연 학생들의 흡연 관련 특성

n=192

특성	구분	명(%)
담배시작동기	호기심에서	82(41.6)
	친구, 선배의 권유로	45(22.8)
	요구불만이나 스트레스해소로	53(26.9)
	멋있어 보여서	6(3.1)
	살 빼기 위해서	3(1.5)
	기타	8(4.1)
	계	197(100)
최초흡연시기	초등학교	20(10.2)
	중학교 1학년	48(24.4)
	중학교 2학년	55(27.9)
	중학교 3학년	52(26.4)
	고등학교 1학년	19(9.6)
	고등학교 2학년	3(1.5)
	계	197(100)
금연 의지	예	157(79.3)
	아니오	40(20.7)
	계	197(100)

흡연 학생 197명 중에서 담배 시작 동기로는 호기심이 82명(41.6%)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욕구 불만이나 스트레스 해소가 53명(26.9%), 친구, 선배의 권유가 45명(22.8%)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중학교 2학년 때가 55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가 52명(26.4%)으로 나타났다. 흡연 학생의 10.2%가 초등학교 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학생들 중에 157명(79.29%)명이 금연 의지가 있으며, 나머지 41명(20.7%)은 금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스트레스 수준

실업계 여고생의 문항별로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실업계 여고생의 문항별 스트레스 수준

실업계 여고생의 항목별 스트레스 수준을 보면 <표 5>와 같다.

학교생활 스트레스에서는 성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평가 할 때가 응답자의 30.5%가 아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고,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하여서도 28.5%가 아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선배나 지도부의 구타 52.8%, 야간학습이나 자율학습에 51.0%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정생활 스트레스에서는 부모의 싸움과 불화로 인하여 응답자의 28.9%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고, 23.9%가 용돈부족으로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부모의 불신과 관심에 47.2%, 형제간의 불화에 43.6%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이 지적될 때 36.7%가 많이 받거나 심하게 받는다고 하였고, 반면 친구가 없거나, 친구로부터 외면이나 무관심으로 인하여 48.8%, 42.2%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아영역에서의 스트레스에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26.3%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34.3%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5> 실업계 여고생의 문항별 스트레스 수준

단위: 명(%)

2) 실업계 여고생의 영역별 스트레스 수준

영역	문항	전혀 않음	약간 반응	대체로 반응	많이 반응	아주 심함
학교생활	과중한 수업량과 숙제, 잦은 시험	55(9.1)	191(31.5)	152(25.1)	111(18.3)	97(16.0)
	교사의 편애와 편견	94(15.5)	162(26.7)	160(26.4)	93(15.3)	97(16.0)
	교사의 꾸중과 지나친 간섭, 처벌	92(15.2)	145(23.9)	149(24.6)	109(18.0)	111(18.4)
	교사의 성의 없는 수업태도, 무관심	135(22.3)	186(30.7)	136(22.4)	76(12.5)	73(12.0)
	학생에 대한 교사의 비인격적인 태도	91(15.0)	114(18.8)	128(21.1)	111(18.3)	162(26.7)
	선배나 지도부의 구타	320(52.8)	73(12.0)	69(11.4)	55(9.1)	89(14.7)
	진학, 진로선택	53(8.7)	96(15.8)	127(21.0)	157(25.9)	173(28.5)
	교사의 이해부족	98(16.2)	143(23.6)	160(26.4)	98(16.2)	107(17.8)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70(11.6)	121(20.0)	133(21.9)	130(21.5)	152(25.0)
	자율학습, 야간 학습	309(51.0)	109(18.0)	82(13.5)	40(6.6)	66(10.9)
	성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평가할 때	83(13.7)	111(18.3)	126(20.8)	101(16.7)	185(30.5)
가정생활	부모의 싸움, 불화	140(23.1)	104(17.2)	92(15.2)	95(15.7)	175(28.9)
	다른 아이나 형제간의 비교	147(24.3)	120(19.8)	124(20.5)	87(14.4)	128(21.2)
	가족간의 대화부족	229(37.8)	160(26.4)	103(17.0)	57(9.4)	57(9.5)
	용돈부족	127(21.0)	141(23.3)	117(19.3)	76(12.5)	145(23.9)
	경제적 빈곤	144(23.8)	146(24.1)	109(18.0)	77(12.7)	130(21.5)
	부모의 이해나 사랑부족	232(38.3)	133(21.9)	108(17.8)	74(12.2)	59(9.7)
	부모의 지나친 제재와 간섭	174(28.7)	149(24.6)	105(17.3)	75(12.4)	103(17.0)
	공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강요	211(34.8)	144(23.8)	96(15.8)	69(11.4)	86(14.2)
	자신이 능력 이상의 부모의 기대	182(30.0)	143(23.6)	128(21.1)	66(10.9)	87(14.4)
	형제간의 불화	264(43.6)	136(22.4)	91(15.0)	55(9.1)	60(9.9)
부모의 불신과 무관심	286(47.2)	112(18.5)	96(15.8)	43(7.1)	69(11.4)	
대인관계	친구와의 싸움이나 무관심	217(35.8)	123(20.3)	102(16.8)	79(13.0)	85(14.0)
	친구와의 경쟁의식	204(33.7)	169(27.9)	120(19.8)	60(9.9)	53(8.7)
	친구로부터의 외면, 무관심, 따돌림,	256(42.2)	104(17.2)	79(13.0)	58(9.6)	109(18.0)
	친구와의 오해 또는 불신	193(31.8)	138(22.8)	111(18.3)	66(10.9)	98(16.2)
	이성문제	214(35.3)	129(21.3)	114(18.8)	61(10.1)	88(14.5)
	모든 면에서 우월한 친구를 볼 때	135(22.3)	180(29.7)	135(22.3)	77(12.7)	79(13.0)
	사람들 앞에서 약점이 지적될 때	84(13.9)	156(25.7)	144(23.8)	110(18.2)	112(18.5)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겼을 때	105(17.3)	185(30.5)	156(25.7)	75(12.4)	85(14.1)
	힘센 친구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구타	305(50.3)	103(17.0)	73(12.0)	53(8.7)	72(11.9)
	친구와의 의견대립	196(32.3)	171(28.2)	144(23.8)	56(9.2)	39(6.4)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	296(48.8)	115(19.0)	72(11.9)	44(7.3)	79(13.0)	
자아영역	뚜렷한 삶의 목표나 신조가 없는 것	160(26.4)	135(22.3)	123(20.3)	69(11.4)	119(19.7)
	외모나 신체적 결함	127(21.0)	156(25.7)	126(20.8)	86(14.2)	110(18.2)
	성격결함(소극적, 내성적, 주체성결여)	184(30.4)	140(23.1)	117(19.3)	70(11.6)	95(15.7)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64(10.6)	121(20.0)	147(24.3)	115(19.0)	159(26.3)
	열등의식	155(25.6)	145(23.9)	166(27.4)	56(9.2)	84(13.9)
	자신에 대한 미움과 감정	152(25.1)	165(27.2)	131(21.6)	62(10.2)	96(15.8)
	능력부족	105(17.3)	141(23.3)	150(24.8)	82(13.5)	128(21.1)
	거짓말이 탄로 났을 때	163(26.9)	180(29.7)	136(22.4)	55(9.1)	72(11.9)
	나의 건강문제	208(34.3)	170(28.1)	103(17.0)	46(7.6)	79(13.0)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거의 없는 것	158(26.1)	159(26.2)	124(20.5)	68(11.2)	97(16.0)
가치관에 대한 갈등	162(26.7)	164(27.1)	138(22.8)	56(9.2)	86(14.2)	

실업계 여고생들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학교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자아영역별로 나누어 영역별 평균을 구하여 살펴보면 <표 6>와 같다.

<표 6> 실업계 여고생의 영역별 스트레스 수준

n=606

스트레스 영역	평균	표준편차
학교 생활	2.60	1.06
가정 생활	2.93	.88
대인 관계	2.49	.96
자아 영역	2.72	1.01
계	2.69	.81

전체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은 5점 만점에서 2.69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81이다. 이들 스트레스 영역 중 가장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로 평균 2.93이며, 다음으로 자아영역에 대한 스트레스로 평균 2.72,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는 평균 2.60,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평균 2.49 순으로 나타났다.

### 3) 흡연 유무에 따른 각 문항별 스트레스 수준

흡연 유무에 따른 문항별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표 7>와 같다.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수준 중에는 비흡연 학생이나, 흡연 학생 모두 진학과 진로 선택에서 평균 5점 만점에 3.38과 3.72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비흡연 학생은 성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평가할 때가 평균 3.2를 나타냈고, 흡연 학생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비인격적인 언행과 무시하는 태도가 평균 3.62를 보였다.

가정생활에서는 비흡연 학생과 흡연학생 모두 부모의 싸움과 불화가 평균 2.92와 3.48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비흡연 학생은 다른 형제간의 비교와 차별할 때가 평균 2.87나왔고, 흡연 학생은 용돈 부족이 평균 3.42를 보였다.

대인관계에서는 비흡연 학생과 흡연 학생 모두 다른 사람 앞에서 약점이나 단점을 지적했을 때가 평균 2.93과 3.20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비흡연 학생은 약속을 어겼을 때가 평균 2.67로 나왔고, 흡연 학생은 이성 문제가 평균 2.95를 보였다.

자아영역에서는 비흡연 학생은 자신의 능력 부족이 평균 2.83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뚜렷한 삶의 목표나 신조가 없는 것에 대하여 평균 2.75이었다. 흡연 학생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평균 3.61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 부족이 평균 3.29를 보였다.

<표 7> 흡연 유무에 따른 각 문항별 스트레스 수준

n=606

영역	문항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M(SD)	M(SD)
학교생활	과중한 수업량과 숙제, 잦은 시험	3.12(1.33)	2.95(1.17)
	교사의 편애와 편견	3.31(1.31)	2.70(1.24)
	교사의 꾸중과 지나친 간섭, 처벌	3.44(1.24)	2.90(2.55)
	교사의 성의 없는 수업태도, 무관심	2.73(1.37)	2.56(1.25)
	학생에 대한 교사의 비인격적인 언행과 무시하는 태도	3.62(1.31)	3.04(1.42)
	선배나 지도부의 구타	2.37(1.59)	2.13(1.47)
	진학, 진로선택	3.72(1.26)	3.38(1.29)
	교사의 이해부족	3.59(4.12)	2.78(1.28)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3.60(1.89)	3.18(1.32)
	자율학습, 야간 학습	2.23(1.47)	2.01(1.32)
	성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평가할 때	3.56(1.41)	3.20(1.41)
	계	3.21(.94)	2.80(.82)
가정생활	부모의 싸움, 불화	3.48(1.53)	2.92(1.53)
	다른 아이나 형제간의 비교 또는 처벌	3.16(1.56)	2.87(2.85)
	가족간의 대화부족	2.58(1.47)	2.30(3.11)
	용돈부족	3.42(1.44)	2.77(1.69)
	경제적 빈곤	3.21(1.52)	2.66(1.41)
	부모의 이해나 사랑부족	2.76(1.50)	2.13(1.22)
	부모의 지나친 제재와 간섭	3.04(1.53)	2.45(1.36)
	공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강요	2.74(1.54)	2.33(1.34)
	자신이 능력이상의 부모의 기대	2.92(1.50)	2.38(1.30)
	형제간의 불화	2.51(1.58)	2.04(1.18)
부모의 불신과 무관심	2.58(1.58)	1.97(1.23)	
계	2.95(1.09)	2.44(1.00)	
대인관계	친구와의 싸움이나 무관심	2.87(1.58)	2.31(1.33)
	친구와의 경쟁의식	2.47(1.41)	2.25(1.20)
	친구로부터의 외면, 무관심, 따돌림, 무시	2.63(1.65)	2.35(1.47)
	친구와의 오해 또는 불신	2.88(1.55)	2.45(1.64)
	이성문제	2.95(1.48)	2.24(1.34)
	모든 면에서 나보다 우월한 친구를 볼 때	2.83(1.51)	2.57(1.26)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약점, 단점이 지적될 때	3.20(1.35)	2.93(1.30)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약속을 어겼을 때	2.93(1.40)	2.67(1.23)
	힘센 친구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구타	2.22(1.57)	2.12(1.37)
	친구와의 의견대립	2.47(1.28)	2.21(1.15)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	2.30(1.56)	2.10(1.36)
계	2.71(1.06)	2.38(.89)	
자아영역	뚜렷한 삶의 목표나 신조가 없는 것	2.97(1.53)	2.75(2.52)
	외모나 신체적 결핍	3.14(1.41)	2.68(1.36)
	성격결함(소극적, 내성적, 주체성결여)	2.74(1.53)	2.52(1.36)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3.61(1.35)	3.23(2.00)
	열등의식	2.85(1.36)	2.51(1.30)
	자신에 대한 미움과 감정	3.04(1.50)	2.46(1.27)
	능력부족	3.29(1.45)	2.83(1.32)
	거짓말이 탐로 났을 때	2.81(1.45)	2.34(1.19)
	나의 건강문제	2.75(1.47)	2.19(1.27)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는 것	3.07(1.43)	2.45(1.33)
가치관에 대한 갈등	2.85(1.42)	2.44(1.29)	
계	3.01(1.05)	2.58(.96)	

#### 4)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비교

실업계 여고생 중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결과 <표 8>와 같다. 학교생활 문제에 있어서 비흡연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2.80이고, 흡연 학생은 3.21로 나왔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문제에 있어서 비흡연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2.44, 흡연 학생은 2.95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비흡연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2.38이고, 흡연 학생은 2.71로 나왔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영역 문제에 있어서 비흡연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2.58이고, 흡연 학생은 3.01로 나왔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역별 총 스트레스 평균을 비교하면 비흡연 학생이 2.55, 흡연 학생이 2.67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비교

분 류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t
	M(SD)	M(SD)	
학교생활문제	3.21(.94)	2.80(.82)	5.444***
가정생활문제	2.95(1.09)	2.44(1.00)	5.517***
대인관계문제	2.71(1.06)	2.38(.89)	3.707***
자아영역문제	3.01(1.05)	2.58(.96)	4.852***
전체스트레스	2.97(.84)	2.55(.76)	6.125***

\*\*\* $p < .001$

### 3. 스트레스 대처 방식

실업계 여고생의 문항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파악하고, 흡연 유무에 따른 대처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실업계 여고생의 문항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

실업계 여고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에서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22.3%가 아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30.5%가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런 때에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따른다는 문항에 35.5%가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 응답하였다.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에서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는 문항에 28.%가 아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29.5%가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47.9%가 사용하지 않음에 응답하였다.

<표 9> 실업계 여고생의 문항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

단위: 명(%)

분류	문 항	사용 정도			
		사용하지 않음	약간 사용	많이 사용	아주 많이 사용
문제 중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움.	104(17.2)	377(62.2)	96(15.8)	29(4.8)
	사과, 보상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함.	116(19.1)	360(59.4)	102(16.8)	28(4.6)
	새로운 신념을 얻음.	158(26.1)	295(48.7)	110(18.2)	43(7.1)
중심적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재발견함.	103(17.0)	282(46.5)	153(25.2)	68(11.2)
	조급히 굴지 않으려고 노력함.	122(20.1)	303(50.0)	130(21.5)	51(8.4)
대처방식	무엇을 할지를 알기에, 일이 되도록 노력함.	89(14.7)	268(44.2)	166(27.4)	83(13.7)
	일에서 창조적인 단서를 얻음.	166(27.4)	268(44.2)	131(21.6)	41(6.8)

분류	문항	사용하지	약간	많이	아주많이
		않음	사용	사용	사용
문제	최후의 수단을 쓰기보다는 여지를 남겨둠.	130(21.5)	290(47.9)	146(24.1)	40(6.6)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자세히 분석함.	139(22.9)	262(43.2)	150(24.8)	55(9.1)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하여 전념함	116(19.1)	283(46.7)	140(23.1)	67(11.1)
	그 일에서 바람직한 것을 얻어 내려고 협상함.	125(20.6)	290(47.9)	145(23.9)	46(7.6)
	기본 전환이 되는 말을 자신에게 함.	142(23.4)	239(39.4)	140(23.1)	85(14.0)
	시작 때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냄.	133(21.9)	288(47.5)	126(20.8)	59(9.7)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킴.	112(18.5)	300(49.5)	140(23.1)	54(8.9)
	가장 바라던 것이 안 되면 차선책을 받아들임.	156(25.7)	285(47.0)	126(20.8)	39(6.4)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름.	181(29.9)	289(47.7)	94(15.5)	42(6.9)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음.	109(18.0)	275(45.4)	150(24.8)	72(11.9)
중심적	입장을 지키면서, 바라는 바를 위하여 싸움.	134(22.1)	265(43.7)	144(23.8)	63(10.4)
	인간적으로 꽤 변모하거나 성장하게 됨.	147(24.3)	310(51.2)	108(17.8)	41(6.8)
대처방식	감정 때문에, 일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애씀.	99(16.3)	255(42.1)	130(20.1)	122(20.1)
	잘 안되리라 생각하지만, 무엇인가 해 봄.	71(11.7)	273(45.0)	171(28.2)	91(15.0)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함.	82(13.5)	204(33.7)	185(30.5)	135(22.3)
	금지령을 가지고 곳곳이 버티어 나감.	139(21.3)	276(45.5)	132(21.8)	69(11.4)
	다음 일이 다를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함.	105(17.3)	271(44.7)	167(27.6)	63(10.4)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려함.	100(16.5)	243(40.1)	170(28.1)	93(15.3)
	내가 할 말이나 생각을 속으로 되풀이함.	112(18.5)	240(39.6)	144(23.8)	110(18.2)
	그 일이 지금보다 나쁠 수도 있었음을 일깨움.	130(21.5)	265(43.7)	131(21.6)	80(13.2)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달음.	116(19.1)	271(44.7)	141(23.3)	78(12.9)
	존경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그에 따름.	215(35.5)	215(35.5)	117(19.3)	59(9.7)
정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램	96(15.8)	178(29.4)	178(29.4)	154(25.4)
	운으로 돌림	164(27.1)	248(40.9)	131(21.6)	63(10.4)
	일이 잘못되었는지를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함.	186(30.7)	261(43.1)	116(19.1)	43(7.1)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함.	290(47.9)	179(29.5)	75(12.4)	62(10.2)
중심적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함.	212(35.0)	249(41.1)	100(16.5)	45(7.4)
	최악의 경우를 각오함.	82(13.5)	290(47.9)	137(22.6)	97(16.0)
대처방식	대책을 시도해 보기 전에 우선 기다려 봄.	137(22.6)	303(50.0)	120(19.8)	46(7.6)
	술을 마심.	229(37.8)	211(34.8)	100(16.5)	66(10.9)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려지 않으려고 노력함.	167(27.6)	240(39.6)	99(16.3)	100(16.5)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함.	75(12.4)	181(29.9)	179(29.5)	171(28.2)
	무엇을 먹거나, 담배나 약으로 기분을 전환함.	294(48.5)	159(26.2)	89(14.7)	64(10.6)
	시도해보거나 위험부담이 큰일을 함.	196(32.3)	246(40.6)	112(18.5)	52(8.6)
	보통 때보다도 더 오래 잠.	149(24.6)	208(34.3)	134(22.1)	115(19.0)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화를 냄.	154(25.4)	244(40.3)	134(22.1)	74(12.2)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행동함.	174(28.7)	276(45.5)	98(16.2)	58(9.6)	

## 2) 흡연 유무에 따른 각 문항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 차이

흡연 유무에 따른 문항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0>와 같다.

<표 10> 흡연 유무에 따른 각 문항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 차이

n=606

분류	문항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움	2.13(.73)	2.06(.71)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함.	2.06(.74)	2.08(.73)
	새로운 신념을 얻음.	2.13(.89)	2.03(.83)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함.	2.33(.86)	2.30(.88)
	대책을 시도해 보기 전에 우선 기다려 봄.	2.25(.84)	2.15(.85)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되도록 노력함.	2.35(.91)	2.43(.89)
	시도해보거나 위험부담이 큰일을 함.	2.12(.88)	2.06(.86)
	최후의 수단을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둠.	2.20(.90)	2.14(.80)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함.	2.26(.96)	2.17(.86)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념함	2.33(.97)	2.23(.85)
	그 일에서 바람직한 것을 얻어 내려고 협상함.	2.22(.86)	2.17(.84)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만한 말을 자신에게 함.	2.36(1.05)	2.24(.93)
	시작 때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냄.	2.16(.87)	2.20(.90)
	일이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킴.	2.31(.84)	2.18(.85)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임.	2.09(.86)	2.07(.84)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것을 따름.	2.05(.86)	1.97(.85)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음.	2.31(.96)	2.30(.87)
	내 입장을 지키면서, 바라는 바를 위하여 싸움.	2.37(.91)	2.15(.90)
	인간적으로 꽤 변모하거나 성장하게 됨.	2.15(.85)	2.03(.82)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방해받지 않도록 애씀.	2.51(1.03)	2.42(.97)
잘 안되리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무엇인가 해 보기로 함.	2.54(.89)	2.43(.88)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 공상함.	2.56(.97)	2.64(.97)	
궁지를 가지고 꾀꾀이 버티어 나감.	2.27(.91)	2.21(.92)	
다음에는 일이 좀 다를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함.	2.42(.88)	2.26(.87)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함.	2.52(1.01)	2.37(.90)	
내가 할 말이나 생각을 속으로 되풀이함.	2.45(1.00)	2.40(.99)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스스로 일깨움.	2.33(.99)	2.23(.92)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달음.	2.42(.95)	2.24(.90)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고, 따름.	2.04(.99)	2.03(.96)	
계		2.28(.55)	2.21(.50)



분류	문항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M(SD)	M(SD)
정서중심적	기적이 일어나길 바람.	2.73(1.01)	2.60(1.03)
	운으로 돌림: 때로는 운이 나쁠 때도 있으니까	2.21(.91)	2.12(.95)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함.	2.05(.91)	2.01(.87)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함	1.87(1.01)	1.84(.99)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함.	2.08(.96)	1.91(.87)
대처방식	최악의 경우를 각오함.	2.51(.94)	2.36(.90)
	대책을 시도하기 전에 우선 기다려 봄.	2.14(.84)	2.11(.85)
	술을 마심.	2.43(1.03)	1.80(.91)
	내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함.	2.27(1.05)	2.20(1.02)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함.	2.74(1.05)	2.73(.98)
	무엇을 먹거나, 담배나 약으로 기분을 전환함.	2.51(1.04)	1.57(.86)
	되든 안 되든 시도해보거나 위험부담이 큰일을 함.	2.23(.93)	1.94(.91)
	보통 때보다도 더 오래 잠.	2.41(1.01)	2.33(1.07)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화를 냄	2.35(.95)	2.15(.96)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행동함.	2.15(.90)	2.02(.92)
계	2.31(.56)	2.11(.50)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에서 비흡연 학생과 흡연 학생 모두가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 또는 공상을 한다는 문항이 평균 4점 만점에 2.64와 2.5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대처 방식으로 나타났다. 비흡연 학생인 경우에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대처 방식이 평균 2.43으로 나왔고, 흡연 학생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대처 방식이 평균 2.52로 나왔다.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에서는 흡연 학생이나 비흡연 학생 모두에서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하는 대처 방식이 평균 2.74, 2.73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대처 방식이 평균 2.73과 2.60으로 나왔다.

### 3)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 비교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비교하면 <표 11>와 같다.

<표 11>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 비교

n=606

분 류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t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2.28(.55)	2.21(.50)	1.579
정서중심적 대처	2.31(.56)	2.11(.50)	4.414***

\*\*\*p <.001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에서는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 중심적 대처에서는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간의 p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하여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 4. 일반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에 대한 차이 검증

흡연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학년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흡연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대한 차이 검증

흡연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흡연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

구분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계
	명(%)	명(%)	
n=606			
<u>학교성적</u>			
상위권	38 (19.3)	77 (18.8)	115(19.0)
중위권	90 (45.7)	225 (55.0)	315(52.0)
하위권	69 (35.0)	107 (26.2)	176(29.0)
계	197 (100)	409 (100)	606(100)
<u>학교생활 만족도</u>			
만족	22 (11.2)	49 (12.0)	71(11.7)
보통	103 (52.3)	256 (62.6)	359(59.3)
불만족	72 (36.5)	104 (25.4)	176(29.0)
계	197 (100)	409 (100)	606(100)
<u>친구와 보내는 시간</u>			
1시간미만	24 (12.1)	116 (28.4)	140(23.1)
1-3시간미만	60 (30.5)	157 (38.4)	217(35.8)
3시간이상	113 (57.4)	136 (33.2)	249(41.1)
계	197 (100)	409 (100)	606(100)

<u>한달용돈</u>			
3만원미만	59 (30.0)	211 (51.6)	270(44.6)
3-5만원미만	56 (28.4)	117 (28.6)	173(28.5)
5만원이상	82 (41.6)	81 (19.8)	163(26.9)
계	197 (100)	409 (100)	606(100)
<u>부모와의관계</u>			
만족	74 (37.6)	185 (45.2)	259(42.7)
보통	83 (42.1)	195 (47.7)	278(45.9)
불만족	40 (20.3)	29 (7.1)	69(11.4)
계	197 (100)	409 (100)	606(100)
<u>건강지각정도</u>			
매우건강한 편	33 (16.7)	101 (24.7)	134(22.1)
비교적 건강한 편	120 (61.0)	270 (66.0)	390(64.4)
건강하지 않음	44 (22.3)	38 (9.3)	82(13.5)
계	197 (100)	409 (100)	606(100)

흡연 학생의 경우 35.0%가 학교 성적이 하위권이고, 비흡연 학생은 26.2%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흡연 학생은 36.5%가 불만족을 나타냈고, 비흡연 학생은 25.4%가 불만족을 보였다.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서 1시간미만이 흡연학생은 12.1%이고 비흡연 학생은 28.4%이고, 반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흡연학생에서 57.4%, 비흡연 학생에서는 33.2%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을 보면 비흡연 학생의 51.6%가 3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5만원이상인 경우는 흡연학생은 41.6%, 비흡연 학생은 19.8%로 흡연학생이 용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흡연학생은 37.6%, 비흡연 학생은 45.32%가 만족을 나타냈고 불만족도는 흡연학생 20.3%, 비흡연 학생 7.1%를 나타냈다.

본인의 건강에 대한 지각 정도를 보면 흡연 학생의 16.7%, 비흡연 학생의

24.7%가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흡연 학생의 22.3%, 비흡연 학생의 9.3%가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2) 흡연 유무에 따른 음주와 부모의 흡연 차이 검증

흡연 유무에 따른 음주와 부모의 흡연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표 13> 흡연 유무에 따른 음주와 부모의 흡연 차이

n=606

구분	흡연학생 명(%)	비흡연학생 명(%)	전체	$\chi^2$
<b>술</b>				
마심	151 (76.6)	166 (40.6)	317(52.3)	69.32***
마시지 않음	46 (23.3)	243 (59.4)	289(47.7)	
계	197 (100)	409 (100)	606(100)	
<b>부의 흡연</b>				
피움	141(71.6)	227 (55.5)	368(60.8)	21.68***
안 피움	56 (28.4)	182 (44.5)	238(39.2)	
계	197(100)	409(100)	606(100)	
<b>모의 흡연</b>				
피움	32 (16.2)	13 (3.2)	45 (7.4)	34.37***
안 피움	165 (83.8)	396 (96.8)	561 (92.6)	
계	197 (100)	409(100)	606(100)	

\*\*\* p <.001

흡연 학생의 76.6%가 음주를 하고, 비흡연 학생은 40.6%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test로 통계 처리 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하여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흡연 유무에 따른 부모의 흡연과의 관계를 606명을 대상으로  $\chi^2$ -test로 통계 처리 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즉 부모의 흡연은 학생의 흡연 여부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학년별 흡연·음주유무와 담배 피우는 친구의 분포

연구 대상자의 학년별 흡연, 음주, 담배피우는 친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학년별 흡연·음주유무와 담배 피우는 친구의 분포

n=606

구 분	1학년 명 (%)	2학년 명 (%)	3학년 명 (%)	계
<u>흡연</u>				
예	104(30.2)	35(35.0)	58(35.8)	197(32.5)
아니오	240(69.8)	65(65.0)	104(64.2)	409(67.5)
계	409(100)	100(100)	162(100)	606(100)
<u>음주</u>				
마심	164(47.7)	50(50.0)	97(59.9)	311(51.3)
마시지 않음	180(52.3)	50(50.0)	65(40.1)	295(48.7)
계	344(100)	100(100)	162(100)	606(100)
<u>담배 피우는 친구</u>				
전혀 없다	67(19.5)	18(18.0)	22(13.6)	107(17.7)
약간 있다	166(48.2)	45(45.0)	71(43.8)	282(46.5)
많이 있다	111(32.3)	37(37.0)	69(42.6)	271(44.8)
계	344(100)	100(100)	162(100)	606(100)

대상자는 1학년이 3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흡연 학생이 104명 (30.2%)이고, 2학년은 100명 중에 흡연 학생이 35명(35.0%)이며, 3학년은 162명 중에 흡연 학생이 58명(35.8%)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학생 606명 중에 32.5%인 409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하는 학생은 1학년은 47.7%, 2학년은 50.0%, 3학년은 59.9%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흡연과 음주를 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에 담배 피우는 친구가 있느냐는 문항에 1학년은 80.5%, 2학년은 82.0%, 3학년은 86.4%의 학생이 주변에 흡연하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4) 흡연 학생의 학년별 담배 시작 동기와 흡연량, 금연의지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흡연 시작 동기와 흡연량, 금연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흡연 학생의 학년별 담배 시작 동기와 흡연량, 금연의지

구 분	n=197			전체
	1학년 명 (%)	2학년 명 (%)	3학년 명 (%)	
<u>담배시작동기</u>				
호기심	44(42.3)	15(42.9)	23(39.7)	82(41.6)
선배나 친구권유	21(20.2)	11(31.4)	13(22.4)	45(22.8)
욕구불만이나 스트레스해소	31(29.8)	6(17.1)	16(27.6)	53(26.9)
멋있어서	1(1.0)	0(.0)	5(8.6)	6(3.0)
살을 빼려고	2(1.9)	1(2.9)	0(.0)	3(1.5)
기타	5(4.8)	2(5.7)	1(1.7)	8(4.1)
계	104(100)	35(100)	58(100)	197(100)

<u>흡연량</u>				
1-2개피	15(14.4)	4(11.4)	2(3.4)	21(10.7)
3-5개피	27(26.0)	13(37.1)	9(15.5)	49(24.9)
6-10개피	41(39.4)	18(51.4)	29(50.0)	88(44.7)
11개피이상	21(20.2)	0(0.0)	18(31.1)	39(19.7)
계	104(100)	35(100)	58(100)	197(100)
<u>금연의지</u>				
예	81(77.9)	31(88.6)	45(77.6)	157(79.7)
아니오	23(22.1)	4(11.4)	13(22.4)	40(20.3)
계	104(100)	35(100)	58(100)	197(100)

흡연 학생의 학년별 담배 시작 동기를 보면 모든 학년에서 42.3%와 42.9%, 39.7%로 호기심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1학년 3학년에서는 29.8%, 27.6%가 스트레스 해소로 나왔고, 2학년에서는 31.4%가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나왔다.

흡연량을 보면 1학년에서 39.4%, 2학년에서 51.4%, 3학년에서 50.0%가 하루에 6-19개피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에서는 31.1%가 하루에 11개피 이상을 피우는 것으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흡연량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금연 의지를 보면 2학년이 88.6%로 가장 많이 나왔고, 흡연 학생의 79.7%가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업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유무에 따른 두 집단간에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 관련 특성과 흡연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흡연을 감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과 일반적 특성

2004년도 한국 금연운동협회가 조사한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율 17.3%에 비하여 본 연구 대상자는 32.5%로 높은 흡연율을 보여주고 있다.

흡연 동기로는 호기심이 가장 많은 41.6%로 나왔으며, 이는 전국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숙(1989)연구의 36.4%보다 높게 나왔고, 경북 일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성희 외2인(1995)연구의 60.1%보다 낮게 나왔다. 다음으로 욕구 불만이나 스트레스 해소가 26.9%이며 이성희 외2인(1995) 연구에서 20.7%로 나온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흡연 시작 시기로는 중학교 2,3학년 때가 27.9%, 26.4%로 가장 많았고, 이는 이성희(1995) 연구에서 26.4%, 23.1%, 이선행(2002)연구에서 30.9%, 23.5%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때에 시작한 학생이 10.2%로 나타났으며, 이성희(1995)연구에서는 5.8%, 강천국(2002)연구에서는 8.7%임을 감안할 때 흡연시작 시기의 저연령화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조기 흡연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이 시급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흡연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고등학교의 흡연예방 교육이 있어야 될 것

으로 사료된다.

흡연 유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흡연 학생들에게 금연 의지를 물어본 결과 79.7%로 대다수 학생들이 금연 의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이해숙(1989)연구에서의 79.1%와 거의 일치하였다. 황혜숙(2000)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금연 예측 변인으로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20.3%가 왜 금연 의지를 가지지 않는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복순(2004)연구에서 흡연 학생의 95.5%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6.6%로 나타났다. 흡연 학생에게 음주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금주와 금연교육이 한꺼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담배피우는 친구의 유무,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흡연 유무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은 주변의 상황에 쉽게 동조되는 경향이 강하고 뚜렷한 가치관을 확립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로부터의 유혹에 쉽게 동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흡연을 막기 위해서 건전한 교우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된다.

한 달 용돈이 5만원이상인 경우 흡연 학생 41.6% 비흡연 학생 19.8%로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하여 용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성희(1995)연구와 일치하였다. 용돈이 많을수록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 흡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사료되며 적절한 용돈 지급 및 용돈을 관리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흡연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박은주, 2002; 이지원, 199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며 이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결국

흡연의 유혹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가 흡연할수록 학생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박은주, 2002; 김수정,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의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학생의 흡연교육은 저학년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흡연이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부모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와 본인의 금연 의지 또한 중요한 변수로 생각되어진다.

## 2.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방식

대상자의 총 스트레스의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2.69로 나왔으며 평균 2.5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유무에 따라서 흡연 학생은 2.97, 비흡연 학생은 2.55로 나타나 흡연 학생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왔다. 이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윤경(2005)연구와 청소년의 흡연실태를 조사한 박은주(2002)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연구 변수의 하위 영역별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스트레스 수준을 가정생활(평균2.93), 자아영역(평균 2.72), 학교생활(평균2.90), 대인관계(평균2.49) 순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박은주, 2002)와 다소 순위의 차이가 있으나 흡연 학생이 평균 2.97로 비흡연 학생의 평균 2.55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흡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흡연하는 학생이 흡연하지 않는 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바꾸어 생각하면 스트

레스가 높으면 흡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성적과 흡연유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이윤경(2005)과 박은주(2002)의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과 학업성적과 관계를 봤는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 학생보다는 실업계 학생이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환경적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김민지(2002)연구에서는 가족 관련 스트레스는 부모, 형제, 친구, 교사의 지지로 인하여 완화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어 학생들의 대처 관련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실업계 흡연 학생의 가정생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실업계 여고생에 대한 금연 관리 프로그램이 가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사용에 있어서 정서 중심적 대처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 학생은 비흡연 학생에 비하여 정서 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대(1985)의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정서 지향적으로 대처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정서 지향적 대처를 사용하였고, Matud(2004)도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정서 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Vitaliano(1990)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정서 중심적 대처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경희(1995)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은 학업성적 문제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업성적문제, 이성친구와의 문제, 심리성격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그 외에는 적극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여자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적인 접근을 마련하기 위한 개방적인 사회적·문화적 공간의 영역을 넓혀야하며, 학교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찾고, 금연교육 시 학생들의 자기 표현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학습 전략과 대처 방식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일정한 틀에 짜인 교육 환경의 형태를 지양하고, 실업계 교육이 취업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특별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서 중심의 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교육하고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흡연이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여고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업계 여고생의 흡연학생과 비흡연 학생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두 집단간에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개 실업계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06명을 대상으로 SPSS1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연구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chi^2$ -test를 사용하였고, 흡연학생과 비흡연 학생간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식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t-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여고생들의 흡연율은 32.5%로 나타났으며, 하루 흡연량은 6~10개피가 가장 많았다. 담배 시작 동기로는 호기심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26.9%로 나타났다. 최초 흡연 시기로는 중학교 2학년 때가 27.9%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초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학생도 무려 10.2%를 차지하였다. 또한 흡연 학생의 79.7%가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흡연 유무에 따른 생활관련 특성에서 학교성적은 하위권이 흡연 학생이 35.0%로 비흡연 학생 26.2%에 비해 높았다. 학교생활에서도 흡연 학생이 불만족 36.35%로 비흡연 학생 25.4%보다 높았고, 친구

와 보내는 시간도 하루 3시간이상이 흡연 학생 57.4%로 비흡연 학생 33.2%보다 높았다. 한달 용돈도 5만원이상인 경우 흡연 학생 41.6%로 비흡연 학생 19.8%에 비하여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불만족이 흡연 학생이 20.3%로 비흡연 학생 7.1%보다 높고, 건강에 대한 지각정도도 건강하지 않음이 흡연 학생이 22.3%로 비흡연 학생 9.3%보다 높게 나왔다. 부모의 흡연과 음주여부는 학생의 흡연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간의 스트레스 수준은 비교한 결과 5점 만점에 흡연 학생 평균 2.97로 비흡연 학생 평균 2.55보다 높게 나왔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 학교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자아영역에서도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흡연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에서는 4점 만점에 흡연 학생 평균 2.28이고, 비흡연 학생 평균 2.21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에서는 흡연 학생이 2.31이고 비흡연 학생이 2.11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하여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 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흡연 예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금연 관리 프로그램이 가정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계와 인문계 여고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스트레스에 대한 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2004년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 흡연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강대운(1996). “인문계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와 학교생활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강운주 외1인(1996).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요인”.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3권1호
- 강천국(2002). “인천지역 고등학생의 흡연 및 음주실태와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건강길라잡이 <http://www.healthguide.kihasa.re.kr>
-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
- 김경희 외1인(2005). “여자 중학생의 흡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1권 1호
- 김민지(2002). “청소년의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권 3호
- 김복순(2004). “청소년의 흡연행태와 태도에 관한연구-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야자(2000). “인터넷 탐색과 비디오 시청에 따른 고등학생의 금연교육효과”. 간호학 탐구 9권 1호
- 김수진(2000). “청소년 흡연의 사회, 심리적요인”. 보건연구정보센터 제3권1호
- 김수영 외1인(2003). “고등학생이 흡연 예방 교육 효과 분석”.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0권 2호

- 김숙영(1999). “스트레스시 비만 여고생의 섭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응 방식의 우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김정희 외1인(1985).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구성 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 행동과학연구
- 김진희 외1인(2001).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 연구 -서울시  
일부 초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대한 보건협회학술지 27권 1호
- 김창대(1985).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현수(1998). “청소년 비행 행동의 판별 요인 분석”. 신경정신의학회지 37권 3호
- 김현실(2001). “청소년의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 및 흡연이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간호학회지 31권 4호
- 김희경 외 8인(2004). “흡연 청소년의 신념, 친구교제, 통제력, 흡연의도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비교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1권
- 김의철 외1인(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 토착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권 1호
- 류미경 외2인(2000).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 행위별 성격 특성”. 대한 보건협회  
학회지 26권 2호
- 맹광호 외1인(1993). “1개 의과대학 남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흡연관련 특성 분석”.  
한국역학회지 15권 1호
- 박재수 외2인(1998). “생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양과 건강 습관과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19권 2호
- 박셋별(2001). “일개 직장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에 대한 인식도 조사”. 가정의학회지 22권12호

- 박순길 외2인(2003). “또래비행동조, 신체적 성숙 및 스트레스가 중학생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 박영애(1996). “학업 성취 및 사회적 지지가 여고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영주 외4인(2004).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와 문제 행동 및건강 상태”. 대한 간호학회지 34권 7호
- 박인석(2003). “흡연 및 음주 여자 청소년의 정신 병리와 식이 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인혜 외2인(2001). “일부 여대생의 흡연경험과 흡연지식, 태도,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 관계연구”. 간호과학논집 6권 1호
- 박은영(1994).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은옥(2004). “흡연 예방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대한 간호학회지 34권 6호
- 박은숙 외1인(1999). “고등학생에 대한 물질 남용 예방 교육의 효과”.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 박은주(2002). “청소년의 흡연실태 및 관련요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현상 외5인(1999). “청소년 흡연 실태와 약물남용, 일탈행위와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20권 4호
- 배종면(1994). “흡연량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서 일(1997). “한국 중.고등학생의 흡연양상의 변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서효정(2002). “흡연중학생과 비흡연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 및 자아개념 비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신동학 외5인(1996). “남성 흡연자의 흡연 형태에 따른 심리적 경향 차이”. 가정의학회지

- 신성래 외1인(2001).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자기주장 훈련 비디오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32권 3호
- 신현숙 외1인(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제9권
- 심은희(1988). “서울특별시 여고생의 흡연 실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경희(2003). “스트레스와 흡연의 관련성 연구”. 연세대학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이경희(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윤경(2005). “일부 남자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흡연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이은영(1992). “흡연 고등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은현 외4인(2003). “고등학생 흡연과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연관성”. 예방의학지 36권 2호
- 이상영(1993). “고등학생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상희(2003).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생의 생활습관 행태비교”.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성희 외2인(1995). “일부여고생의 흡연실태”. 경북의학지 36권 2호
- 이소우 외2인(1994). “청소년 간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시은(1997).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지원(1997). “청소년의 흡연과 환경적요인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해숙 외2인(1989). “전국 남자 중. 고등학생들의 2년간의 흡연력의 비교”.

- 한국역학회지 11권 2호
- 이혜옥 외1인(1994). “중·고등학생이 스트레스정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8권 1호
- 임국환 외3인(2004). “대학생들의 음주, 흡연 실태와 관련성분석”. 대한 보건협회 학술지 30권 1호
- 오가실 외1인(1987). “스트레스 생활사건, 건강 문제, 대응, 사회적 지지의 관계”. 대한 간호학회지 20권 3호
- 오선향(200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장세진(2002). “스트레스의 사회적요인”. 한국역학회지 24권 2호
- 정옥남(1994). “고등학생의 성격 특성과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정은선(1996).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상담 기대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정은주(2000).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 성적 및 정신 건강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정혜경(2001). “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대한 간호학회지 31권 4호
- 조한규 외1인(1999). “청소년의 건강 습관과 스트레스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20권 10호
- 주혜경(1994). “남자 고등학교 학생이 흡연과 스트레스와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 7권 2호
- 지선하(2002).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 대한 예방의학회 추계 학술 대회 연제집  
삼포지음:
- 진희숙 (1994). “청소년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의 실태와 요인”. 중앙대학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차태경(1998). “고교생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 방안의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최선하(1992). “여고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운동 및 수면과의 관계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6권 1호

최철순(2000).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실태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www.kash.or.kr](http://www.kash.or.kr)

한선희(1999). “중학생의 약물 남용 태도 및 행동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2권 1호

황보빈(2003). “청소년 흡연의 의학적 심각성”. 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황승수 외5인(2000). “성인 여성흡연자의 흡연양상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  
가정의학회지 21권 3호

황혜숙(2000).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의도 예측요인”.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Bell TM(1997). Stressful life event and coping methods in mental  
illness and wellness behavior. Nursing Reserch 26(2) 136

Binyet, S.& DeHaller, R (1993) Efficacy of smoking prevention  
campaign in adolescents ;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Soz.  
Prev Med (Switzerland) 38(16):366-378

Bobo jk, gilchrist LD, Schilling RF. Noach B, Schinke SP(1986).  
Cigarette smoking cessation. J. Subst Abuse Treat 3:21-5

Cannon WB. The wisdom of the body. W W Norton, New York(1932).

- Health Canada on smoking and tobacco use. Report and Research :Woman and Smoking Cessation
- Hoffmann. D.H (1983)"Cigarette Sidestrem Smoke ; Formation Analysis and Model Studies on the Uptake by non-Smokers Paper Presented at the U.S.Japan meeting on new etiology of lung cancer" Honolulu. March 21-23
- Folkman S. & Lazarus R.S(1984). Stress, appraisal an coping. New York. Spring Pub. Co.
- Folkman S. & Lazarus R.S(1986)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7-113
- Kaplan H I and B .J. Sadock(1985) Modern Synopsis of Comprehensive Text of Psychiatry, 4thed. Baltimore/London, Killiams and Willkins.
- Lazarus R.S (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New York : S. P. Medical & Scientific Books
- Moos, R. H & Billings. A. G.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In L. Goldberger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 : Theoretical and clinical naspects, 212-230, New York : Free Press
- Matud, M.P.(2004).Gender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37,1401-1415
- Selye H.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eraw-Hill, 1956
- Reginald VF. et al. Nicotine Dependence in woman. JAMWA 1996:51 (1&2):19-24

Vitaliano, P. P,(1990)Appraised Changeability of a Stressor as a  
Modifi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and Depression :  
A Test of Hypothesis of F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582-592



<부 록>

설 문 지

No. \_\_\_\_\_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긴장과 피로움을 어느 정도 겪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을 때 대처방식과 흡연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요령>

각 문항의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과 피로움의 정도에 따라

아주 심하다..... 5

많이 받는다..... 4

대체로 받는다..... 3

약간 받는다. .... 2

전혀 받지 않는다..... 1

0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면 애써 대답한 내용이 모두 무효가 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허혜숙

설문지 1 : 흡연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

설문지 2 :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질문지

설문지 3 :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지

<설문지 1 : 흡연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되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즘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

① 예 -> 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6번 문항으로

2. 언제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셧습니까?

\_\_\_\_\_ 학교    \_\_\_\_\_ 학년

3. 하루에 얼마나 피우십니까?

① 1-2개피    ② 3-5개피    ③ 6-10개피    ④ 11개피이상

4. 처음 담배를 피우게 된 동기는?

① 호기심에서    ②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③ 욕구불만이나 스트레스해소로  
④ 멋있어 보여서    ⑤ 살 빼기 위해서    ⑥ 기타

5. 금연의 의지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현재 술을 마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친한 친구 중 담배를 피우는 친구는 얼마나 됩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있다.    ③ 많이 있다

8.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학교친구인 경우 학교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외, 그 외 친구일 경우 모두 시간에 포함)

① 1시간미만    ② 1시간~3시간미만    ③ 3시간이상

9. 한달 용돈은 얼마나 됩니까?

① 3만원 미만    ② 3만원~5만원미만    ③ 5만원이상

10. 학업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상위권    ② 중위권    ③ 하위권

11. 학교생활에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불만이다.
12.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어디에 속하는 편입니까?  
 ① 넉넉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어려운 편이다.  
 부모님의 흡연 정도는?
13. 아버지 ① 전혀 안 피우심 ② 가끔 피우심 ③ 하루 반 갑 정도  
 ④ 하루 한 갑 이상
14. 어머니 ① 전혀 안 피우심 ② 가끔 피우심 ③ 하루 반 갑 정도  
 ④ 하루 한 갑 이상
15.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한다. ② 보통이다. ③ 불만이다.
16. 본인의 건강상태는  
 ① 매우건강하다 ②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③ 건강하지 않다

<설문지2 : 스트레스수준에 관한 질문지>

※다음 문항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상황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은 후 그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번호에 0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받지 않는다	약간 받는다	대체로 받는다	많이 받는다	아주 심하다
1. 과중한 수업량과 숙제, 잦은 시험	1	2	3	4	5
2. 교사의 편애와 편견	1	2	3	4	5
3. 교사의 꾸중과 지나친 간섭, 처벌	1	2	3	4	5
4. 교사의 성의 없는 수업태도, 무관심	1	2	3	4	5
5. 학생에 대한 교사의 비인격적인 언행이나 무시하는 태도	1	2	3	4	5
6. 선배나 지도부의 구타	1	2	3	4	5
7. 진학, 진로선택	1	2	3	4	5
8. 교사의 이해부족	1	2	3	4	5
9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1	2	3	4	5
10. 자율학습, 야간 학습	1	2	3	4	5
11. 성적으로 학생의 인격을 평가할 때, 성적공개	1	2	3	4	5
12. 부모의 싸움, 불화	1	2	3	4	5
13. 다른 아이나 형제간의 비교 또는 처벌	1	2	3	4	5
14. 가족간의 대화부족	1	2	3	4	5

문항	전혀 받지 않는다	약간 받는다	대체로 받는다	많이 받는다	아주 심하다
15. 용돈부족	1	2	3	4	5
16. 경제적 빈곤	1	2	3	4	5
17. 부모의 이해나 사랑부족	1	2	3	4	5
18. 부모의 지나친 제재와 간섭	1	2	3	4	5
19. 공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강요	1	2	3	4	5
20. 자신이 능력이상의 부모의 기대	1	2	3	4	5
21. 형제간의 불화	1	2	3	4	5
22. 부모의 불신과 무관심	1	2	3	4	5
23. 친구와의 싸움이나 무관심	1	2	3	4	5
24. 친구와의 경쟁의식	1	2	3	4	5
25. 친구로부터의 외면, 무관심, 따돌림, 무시	1	2	3	4	5
26. 친구와의 오해 또는 불신	1	2	3	4	5
27. 이성문제	1	2	3	4	5
28. 모든 면에서 나보다 우월한 친구를 볼 때	1	2	3	4	5
29.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약점, 단점이 지적될 때	1	2	3	4	5
30.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약속을 어겼을 때	1	2	3	4	5
31. 힘센 친구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구타	1	2	3	4	5
32. 친구와의 의견대립	1	2	3	4	5
33.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	1	2	3	4	5
34. 뚜렷한 삶의 목표나 신조가 없는 것	1	2	3	4	5
35. 외모나 신체적 결핍	1	2	3	4	5
36. 성격결함(소극적, 내성적, 주체성결여)	1	2	3	4	5
37.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1	2	3	4	5
38. 열등의식	1	2	3	4	5
39. 자신에 대한 미움과 감정	1	2	3	4	5
40. 능력부족	1	2	3	4	5
41. 거짓말이 탄로 났을 때	1	2	3	4	5
42. 나의 건강문제	1	2	3	4	5
43.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는 것	1	2	3	4	5
44. 가치관에 대한 갈등	1	2	3	4	5

<설문지 3 : 대처방식에 대한 질문지>

이제 방금 앞의 질문지에서 체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각 항목에서 적당한 번호에 「0」 표하여 주십시오.

문항	사용 하지 않음	약간 사용	많이 사용	아주 많이 사용
1.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1	2	3	4
2.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	1	2	3	4
3.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1	2	3	4
4.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1	2	3	4
5.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한다.	1	2	3	4
6. 조금씩 굴거나 욕감에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7.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8. 운으로 돌린다 : 때로는 운이 나쁠 때도 있으니까	1	2	3	4
9.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1	2	3	4
10.최후의 수단을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다.	1	2	3	4
11.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 본다.	1	2	3	4
12.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다.	1	2	3	4
13.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념한다. -다음단계의 준비	1	2	3	4
14.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1	2	3	4
15. 그 일 (또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 내려고 협상하거나 타협한다.	1	2	3	4
16.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만한 말을 자신에게 한다.	1	2	3	4
17. 시작 때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낸다.	1	2	3	4
18.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1	2	3	4
19. 일이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1	2	3	4
20.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인다.	1	2	3	4
21.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것을 따른다.	1	2	3	4
22. 최악의 경우를 각오한다.		2	3	4
23.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는다.	1	2	3	4
24. 어떤 대책을 시도해 보기 전에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다려 본다.	1	2	3	4
25. 내 입장을 지키면서, 바라는 바를 위하여 싸운다.	1	2	3	4
26. 술을 마신다.	1	2	3	4
27. 인간적으로 꽤 변모하거나 성장하게 된다.	1	2	3	4
28. 내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29. 내 감정때문에,다른 일들이 너무 방해받지 않도록 애쓴다.	1	2	3	4

문 항	사용 하지 않음	약간 사용	많이 사용	아주 많이 사용
30.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1	2	3	4
31. 잘 안되리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무엇인가 해 보기로 한다.	1	2	3	4
32.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1	2	3	4
33. 궁지를 가지고 곳곳이 버티어 나간다.	1	2	3	4
34. 무엇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기분을 전환한다.	1	2	3	4
35. 다음에는 일이 좀 다를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한다.	1	2	3	4
36. 되든 안 되든 한 번 시도해보거나 매우 위험부담이 큰일을 한다.	1	2	3	4
37.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38. 보통 때보다도 더 오래 잔다.	1	2	3	4
39. 내가 할 말이나 생각을 속으로 되풀이한다.	1	2	3	4
40.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화를 낸다.	1	2	3	4
41.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스스로 일깨운다	1	2	3	4
42.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1	2	3	4
43.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1	2	3	4
44.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런 때에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대로 따른다.	1	2	3	4

# **ABSTRACT**

## **A Study on Commercial High School Girls' Smoking, Stress Level and Their Ways of Coping**

**Heo, Hea Soog**

**Dept. of Nursing Education**

**The Education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

Despite adverse physical and mental effects of smoking, the number of high school girls who smoke increases. 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imed to survey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smoking and non-smoking commercial high school girls and thereupon, determine the differences of stress level and ways of coping between two groups.

To this end,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with 16 items about demographic variables and smoking characteristics, 44 items for measurement of stress level and the same number of items about ways of coping.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from September 15 through 27, 2005, sampling 606 commercial high school girls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10.0 for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chi^2$ -test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32.5% of the sample students were smoking with their daily average of 6-19 cigarettes. 41.6% of students were motivated by a curiosity to smoke and 26.9% of them were smoking to be relieved of stress. 27.9% of the girls began to smoke when they were in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nd 10.2% of them started smoking even when they were elementary girls. 79.7% of the girl students were willing to stop smoking. On the other hand, smoking girls were less satisfied with school life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recording lower school performances than non-smoking girls. They were also spending more pocket money every month, and perceiving that they were not health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mmercial high school girls' smoking habi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parents' smoking and drinking habits.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tress level between smoking and non-smoking girls, it was found that the former group scored 2.97 on a 5-point stress level scale, significantly higher than 2.55 scored by the latter group at  $P < .001$ . At this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scores differed between two groups in such sub-areas as school life, home life, human relationship and self-esteem. Such findings suggest that smoking students are more stressed than non-smoking ones.

Third, it was found that smoking students' ways to cope with their stress scored 2.31 on a 4-point scale, which was significantly ( $p < .001$ )



different from 2.11 scored by non-smoking students, but terms of problem-centered ways of coping, there was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Such findings imply that the former group use emotional-centered or passive ways of coping more than the latter group.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ut forwards;

As girls tend to start smoking earlier,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m on prevention of smoking in a sustained and systematic way when they are in lower elementary grades. As found from this study, commercial high school girls seem to be stressed most for their family life, while they tend to keep smoking due to the stress from their family life; smoking girls' stress level (2.95)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smoking girls' (2.44) at  $p < .001$ .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associate a 'stop-smoking' management program with a family relationship program. Also,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compare stress-coping measures between commercial and grammar high school girls. Lastly, it is deemed urgent to develop and operate some effective stress management programs for high school girls.